

Nasal lymphoma treated with COP protocol in a cat

Il-woong Kang, Kyoung-won Seo, Cheol-Yong Hwang, Hwa-Young Youn*

*Department of Veterinary Internal Medicine, 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론: 비강 내 림프종(lymphoma)은 개와 고양이에서 드물게 나타나며 개보다는 고양이에서 발생빈도가 더 높게 보고되어 있다. 고양이의 비강 내 림프종은 수막종(meningioma)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보고되고 있는 종양이다. 비루, 코골기, 재채기 등의 임상증상을 보이며 30~540일의 생존기간 (평균 88.5일)을 보인다.

재료 및 방법: 7년령의 중성화암컷 Domestic short hair 고양이가 안면부종, 안구 분비물, 코 피, 호흡 곤란, 무기력, 체중감소를 증상으로 서울대학교 동물병원에 2005년 11월 22일에 내원하였다. 1년 3개월 전부터 비루를 보였고 3개월 전부터는 현재 증상을 동반한 안면기형을 보였다. FeLV, FIP, FCV, FHV에 대한 PCR검사결과는 음성판정을 받았다. 이에 확실한 진단을 위하여 CBC, 혈청화학검사, 방사선 검사, 전산단층촬영술(Computed tomography), 미세침흡인검사법(Fine needle aspiration)을 실시하였다.

결과: 비강 종괴에 대하여 미세침흡인검사 결과 림프종으로 확인되었다. 흉부의 방사선 검사 결과 폐에 결절들이 확인되었다. CT검사 결과 비강 내 연부조직 밀도 음영의 충만과 비갑개 음영의 소실이 있었다. 이에 비강 림프종에 준한 대증치료와 항암치료(COP)를 실시하였다. 입원과 통원치료를 병행하던 중 항암치료 약 110일경인 2006년 3월 22일 신경증상(과호흡, 선회운동, paddling)을 보이며 폐사하였다. 진단 후 약 121일의 생존기간을 가졌으며 폐사 후 부검결과 신장, 뇌, CNS의 전이도 관찰할 수 있었다. 조직병리검사에서 림프종을 확진 할 수 있었으며 면역조직화학법 (Immunohistochemistry)에서는 T세포와 B세포가 혼재되어 나타났다.

임상적 의의: 고양이에서 비강 림프종은 발생 빈도가 적은편이다. 특히 전신적으로 전이되는 형태는 더 욱 드문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치료가 병행되더라도 생존기간이 극히 짧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케이스는 원발적으로는 비강에 발생하여 초기 검사시 폐에 전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항암치료를 적용하여 약 4개월간 유지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